

# 60년대 이후 패션 트렌드를 중심으로 본 패션 모델이미지

심 광 속

동명정보대학교 패션 디자인학과 조교수

## A Study of Fashion Model Image According to Fashion Trend since 1960

Sung, Kwang-Sook

Dept. of Fashion Design, DongMyung University of Information Technology  
(2004. 1. 9. 접수)

### Abstract

The main focus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interrelation about the defining fashion model image by the fashion trend since 1960. This is expressed as follows, First, in the 60s'; 1) Image of innocent dolly style, Jean Shrimpton 2) Image of sexual style, Celia Hammond 3) Image of art style with characteristic mask, Peggy Moffitt 4) Image of immature boyish style, Twiggy. Second, in the 70s'; 1) Image of natural and intelligent style, Larun Hutton 2) Image of exotic style with black beauty, Imman 3) Image of graceful and sexual style, Veruschka 4) Image of glamour and sexual style, Jerry Hall. Third, in the 80s'; 1) Image of unisexual style with power, Grace Jones 2) Image of graceful and noble style, In'es de la Fressange 3) Image of healthy and sexy style, Christie Brinkley 4) Image of sexy style with good sense, super model. And fourth, in the 90s' and now; 1) Image of glamour sexual style with self-consciousness, Claudia Shiffer 2) Image of graceful style with dignity, Christy Turlington 3) Image of asexual and androgenous style, Stella Tennant, 4) Image of Twiggy style with immature and slender, Kate Moss 5) Image of new glamour style, Giseel Bundchen 6) Image of new style with unique beauty, Amber Vaiietta 7) Image of exotic style, Devon Aoki 8) Extraordinary, image of various style. The result of this study, fashion models image have played a role in transmitting the style of fashion trend in their relevancy. Anyway it can be said that fashion models imply figurative meanings of the fashion trend.

**Key words** : Fashion Model Image(패션모델이미지), Fashion Trend(패션 트렌드)

## I. 서 론

트렌드는 사전적으로 방향, 경향, 동향, 추세, 유행을 뜻한다. 패션용어로 쓰일 경우 패션트렌드는 광의적으로 의복의 경향, 혹은 다음시즌의 패션경향을 말한다. 세계적 변화의 양식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사회적 트렌드이며, 가치체계, 도덕, 미에 대한 개념, 추앙하고 따라가는 대상,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 즉 일

반적인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 문화적 변동의 중요한 사회적 경향이다. 이러한 사회적 트렌드를 받아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착장을 구성하는 방법이 패션 트렌드인 것이다<sup>1)</sup>.

패션 모델은 이상적인 신체미를 가짐으로써, 사회문화적·미학적·예술적 관점에서 신체가 가지는 의미를 기호학적 측면에서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신체로 표현되는 패션커뮤니케이션 매체이다<sup>2)</sup>.

패션 모델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패션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역할과 신체미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새로운 모델의 이미지가 대두되었다 사라

\*Corresponding author : Sung, Kwang-Sook  
E-mail: kssung@tmic.tit.ac.kr

지는 것은 그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하여 그 시대에 맞는 이미지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회전반적인 분위기나 풍조에 의해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이는 변화하는 패션 즉 패션 트렌드가 시대에 따라 새로운 모델의 이미지가 대두되고 사라지게 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다시말해 패션 트렌드와 패션 모델 이미지는 패션이라는 동일한 기의(記義)를 지닌 사회문화적 기표(記標)이기에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내재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 트렌드와 그에 따른 패션 모델의 특성을 살펴보고 상호 어떠한 연결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패션은 시대의 이상적인 신체미를 구현하는 수단이 되어왔으며, 역설적으로 유행패션은 유행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신체미의 이상을 주도해왔다. 동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바탕으로 변화되는 패션 트렌드를 중심으로 그에 따른 패션 모델 이미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패션의 변화구도와 이상적인 인체미를 파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의 있는 작업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의 범위는 196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제한하였으며, 10년 단위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 조사와 함께 패션잡지, 패션 정보지, 패션 서적을 통하여 패션트렌드를 살펴보았으며, 이때 트렌드는 세세하게 다루기보다는 각 10년대를 대표할 만한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트렌드를 선정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이유는 본고가 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트렌드에 따른 모델의 이미지에 대하여 그 흐름과 연계성의 패턴을 가늠하기 위한 것이므로 각 10년 단위를 상세히 다루기보다는 큰 흐름으로 맥락을 짚어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소년 하위문화의 패션이나 스트리트 패션은 연구범위의 폭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고, 또한 시대를 대표하는 이상적인 대표적 패션모델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시켰다.

패션모델 연구는 60년대부터 대략 2000년 경까지는 패션 문헌상<sup>3)</sup>에 주요모델로 평가 받는 이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패션잡지(Vogue, Elle, Bazaar)에서 자주 등장하며 스타모델로 평가받는 모델을 중심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아울러 패션모델의 논의시각 모델이 가지는 주요 이미지를 중심으로 논의하며, 패션컬렉션이나 패션사진마다 다르게 재창조되는 변화하는 이미지로 논의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예를들면 제2의 트위기라 불리는 케이트 모스는 패션

쇼나 잡지 등에서 수없이 다양한 이미지로 변신하지만 그녀의 고유한 이미지는 역시 마르고 빈약하며 미성숙한 트위기 같은 특징이므로 이같은 특성을 그녀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보고 논의하였다. 모든 패션트렌드의 내용과 모든 패션모델의 이미지가 완전히 부합되고 일치될 수는 없다. 시대의 모델 이미지는 패션트렌드 이외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또다른 변수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만 본고는 상당부분에 있어 양자간에 상호밀접한 연관성이 내재해 있음을 추적하고 연구하여, 그 관계를 논의하고자한다.

이상과 같은 전제하에 시대별로 패션 트렌드에 따라 트렌드 이미지와 상호연관성이 있으며, 그 시기에 대표적인 모델로 평가받는 모델을 선정하여 함께 논의하고, 아울러 이를 패션트렌드에 의한 패션스타일과 패션모델이미지, 그리고 대표적인 패션모델의 그룹으로 제시하며 논의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전개하였다.

## II. 패션 트렌드와 패션 모델

### 1. 패션 트렌드

의상은 인간이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상은 독자적인 존재의 양상을 띄는 것이 아니라 넓게는 의식주의 모든 생활양식, 좁게는 얼굴의 분위기나 장신구 등과 어울려서 하나의 총체적인 ‘이미지’를 연출<sup>4)</sup>함으로써 자기정체(self-identity)표현이라는 역할을 한다.

트렌드(trend)의 일반적인 의미는 경향(傾向), 변동(變動), 추세(抽稅)를 말한다. 어원은 라틴어의 트렁커스(truncus) ‘나무줄기’란 뜻을 나타내며, 영어로는 트렁크(trunk)를 잘라서 만든 ‘수레바퀴(Wagon wheel, Rundle)’라는 뜻으로 ‘이동’,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트렌드의 다른 면의 의미는 ‘다가올, 앞선’ 등과 같은 선행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패션 트렌드란 ‘fashion’과 ‘trend’ 두 단어가 연결된 합성어로, 간단히 표현하면 ‘패션 경향’을 뜻하며, 패션이 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태, 패션이 변화하고 있는 기본적인 흐름을 뜻한다. 그리고 패션에 있어 나타나는 움직임의 방향과 다가올 시즌에 따른 유행스타일의 특성을 패션 트렌드라고 하며 이것은 또 소비자들에게 패션으로 어필 될 수 있는 패션 경향이라는 의미로 풀이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사회의 전반

적인 현상은 물론 인간의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인 현상들이 용해되어 인간 생활을 주도해 나가는 하나의 큰 흐름으로 나타나는 패션 현상을 패션 트렌드라고 한다<sup>5)</sup>. 그러나 이러한 트렌드란 말은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어 나타나지는 않았다. 패션 관련 정보기관 또는 일부 패션전문가 집단에서 주로 사용되던 용어였으나 근래에 이르러 패션 트렌드가 패션에 따른 하나의 현상으로 부상함과 동시에 각계 각층으로 파급되어 일상용어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한편, 각 분야별로 나름대로 주도적인 트렌드가 나타나지만, 패션 트렌드는 사회적인 변화에 따른 대중들의 욕구와 의식상태를 다양한 의복착장을 통해 표현하고 있으며, 모든 트렌드에 앞선 주도적인 역할로서 기타 트렌드를 전체적인 트렌드적 분위기로 이끌어 가고 있다.

## 2. 패션모델

역사 속에서 여성의 신체는 시대에 따른 미의 이상형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어 왔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신체적 이상형을 창조해 왔다. 본래 인간의 신체는 그 누구의 것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불완전한 것인데, 인체를 재현할 때에는 만드는 사람의 특수한 감각이 끼어 들고 여기에 이상적인 신체를 추구하기 때문에 실제 신체형과 이상적인 신체형이라는 이중성을 지니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다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상적인 신체형에 의해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아왔으며, 이상적인 신체형은 사회적 통제속에서 여성의 미와 나르시즘적인 이상을 표현하는 역할<sup>6)</sup>을 해왔다. 특히 복식은 인체 위에 표현되는 예술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상적인 신체에 근접하기 위해 의상을 이용해왔다.

모델(model)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표준, 기준, 모형 또는 화가, 조각가” 등의 작품의 주제가 되는 사람, 미술가의 작품을 위해 포즈를 취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특히 젊은 여성)모델, 패션쇼, 텔레비전 광고, 전신사진 따위를 위한 모델, 그대로 닮은 것<sup>7)</sup>으로 옷을 입어 주는 대가로 돈을 지불 받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며 불어로는 ‘모델’이 ‘의복’ 그 자체를 의미한다<sup>8)</sup>. “모델은 의상에 생명을 준다”고 하여 모델에 의한 옷의 전시방법이 시작됨에 따라 “마네킹에 의한 고정된 모습만 보여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옷에 생명력을 줄 수 있게 되었고 디자이너가 표

현<sup>9)</sup>하고자 하는 의상의 의도를 표현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모델이라는 것은 이상적인 육체를 구조화하는 것에 의해서 옷을 입는 기술을 요약한 것으로 이러한 기술을 통해 몸은 “미”나 “패션” 유행의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다.

역사상 최초의 여성 마네킹(mannequin) 이른바 패션모델은 파리 최초의 고급 의상점을 설립한 오프꾸뛰르의 조상인 찰스 프레데릭 워드(C. F. Worth)에 의해 1958년 경에 창 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델은 최초로 ‘마드모아젤 마네킹’이라 불리었는데, 워드 살롱의 풍경을 취재하던 기사가 단순히 마네킹이라고 썼기 때문에 그 후 그렇게 불리웠던 것이다<sup>10)</sup>. 그 후 폴 푸아레는 신분이 낮은 직업이었던 모델의 위치를 끌어 올린 장본인이었다. 1912년 파리 메종의 모델을 인솔하여 유럽 각지의 도시를 방문하면서 데먼스트레이션을 벌였는데 모델에게 ‘모드의 사절’이라는 사명을 준 최초의 파견이었다<sup>11)</sup>.

## III. 패션 트렌드와 패션 모델이미지

### 1. 1960년대

60년대는 하이패션의 시대가 가고 언더그라운드 중심의 틴에이지 영 패션의 시대가 도래한다. 10대의 젊음의 뉴 파워가 득세하며, 레저, 음악, 패션에 관심이 집중된다. 엘레강스는 더 이상 패션이 추구하는 이상이 아니었으며, 전통을 거부하여 이를 이탈하는 영 패션으로 패션의 중심이 이양된다<sup>12)</sup>. 또한 경제적인 풍요로 인해 삶을 즐기며, 향유하는 방식으로 이양됨에 따라 물질만능주의 사상이 팽배되어 나타났다. 엘리트 위주의 예술에 싫증을 느끼면서 대중의 감각을 중시한 자유로움과 다양함에 눈을 돌리게 되었으며 현대적 감각의 새로운 미술의 생성은 의상에 접목되어 옵아트룩, 팝아트룩, 몬드리안룩을 탄생시켰다<sup>13)</sup>.

반면에 20년대에 유행했던 샤넬스타일 중 가르송 스타일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이 스타일은 소녀같은 돌리(dolly)스타일로 이노센트(innocent)룩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10대 후반에서 2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한편 미소의 우주개발은 앙드레 쿠레주와 파코 라반에게 영감을 주어 60년대 후반 스페이스룩을 탄생시켰다.

60년대는 미니스커트가 가장 대표적인 패션으로

떠오른다. 이는 비장식성, 단색, 최소형태 등 극명하게 모더니티(modernity)를 표출하는 표현양식을 취하는 역사상 가장 짧은 치마이다. 철저하게 단순화되고, 더 이상 환원 할 수 없는 최소한의 것을 제시함으로써 대상자체를 드러나 보이게 하는 경향의 미니멀리즘은 3차원적 인체의 형태를 구축하고 있는 선과 면을 최소화함에 의해 인체와 의상의 형태의 단순성과 순수성을 표현해 주었다. 아울러 67년경 패션에 디자이나너 콜렉션에 사이키델릭과 에스닉 패션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록 스타들의 복장에 사이키델릭 모드가 사용되었다. 이 시기는 꾸뛰르 메종에 소속된 모델로 그 이미지가 몇몇 가지로 거의 정형화되다시피 하며, 모델이 팝 세대의 마스크트로 관심과 인기를 얻는 존재로서 부각되기 시작한다.

#### 1) 이노센트, 돌리 스타일의 이미지, 진 쉬림톤(Jean Shrimpton)

쉬림톤(사진 1)은 큰 눈에 뚜렷한 이목구비, 5피트 8과1/2인치의 키, 118파운드(53.4 kg)의 체중에 34 - 24 - 35의 균형잡힌 체형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유스퀘이크(youthquake)로, 이탈된 젊음의 상징으로 주목받았다. 그녀는 이전의 모델들이 취한 위엄있는 포즈를 거부하고, 바닥에 앉은채 이브닝 가운을 입고, 가슴에 무릎을 꿇어 앉은채 테일러드 수트를 입는 포즈를 취했으며, 거리에서 어린아이들처럼 뛰어다니며 포즈를 취하기도 하였다<sup>14)</sup>. 젊은이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한 소녀같은 돌리 스타일, 이노센트룩의 이미지와 부합되는 모델이다.

#### 2) 섹슈얼 스타일의 이미지, 세리아 하몬드(Celia Hammond)

푸뤼겔(J.C. Flugel)은 유행은 의복의 강조라기 보다는 실제 신체부위의 강조로 보고, 남녀간의 특정한 의복을 선택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성적본능을 자극하는데 있고 하였다. 특별히 60년대 패션트렌드와 일치시키기는 어렵지만 섹슈얼 이미지는 시기를 초월하는 공통된 패션의 표현이상으로, 60년대 미니스커트는 성적인 부위로 간주되어 노출을 극도로 꺼려한 다리 부분의 노출을 가장 극대화한 것으로 명백한 섹슈얼리티를 드러내고 있다. 세리아 하몬드(사진 2)는 60년대 블론드 섹스 키튼(blond sex kitten)으로 대표되며, 마치 그 당시의 스타인 브리지트 바르도를 연상하게 하는 글래머 섹슈얼이미지의 모델이다. 그 밖에 질 케닝톤(Jill Kennington), 타니아 마레,(Tania

Mallet), 수 머레이(Sue Marray) 등을 들 수 있다.

#### 3) 개성적 마스크의 아트적 스타일의 이미지, 페기모핏(Peggy Moffitt)

팝아트, 옹아트, 스페이스룩의 이미지를 잘 드러내주는 페기모핏(사진 3)은 루디 그리니히(Rudi Gemreich)의 스웬수트(swimsuit)로 유명한 모델이다. 개성적인 날렵한 마스크와 비달 사순의 구성적 헤어스타일, 인위적인 개조가 없는 자연스러운 풍만하지도 슬림하지도 않은 적당한 자연스런 몸매를 가진 모델이다.

팝아트적인 의상은 삶의 풍요를 즐기는 자세와 대량생산에 의한 획일성의 혐오, 자유 정신이 표현되었기에 인위적 과장이 없는 자연 인체 본연의 균형잡힌 체형미가 선호되었다. 그러면서도 팝아트적인 강렬한 색감과 대중적인 오브제, 예술적 이미지, 미래적인 우주이미지 등이 매치되는 강한 개성적인 얼굴모습을 한 페기 모핏 같은 패션 모델이미지가 요구되어진다.

#### 4) 미성숙한 보이쉬(boyish)스타일의 이미지, 트위기(Twiggy)

모델계의 신화적인 존재로 불리우는 트위기(사진 4)는 60년대 시대정신의 실현이며 상징으로 깡마른 체형에 미성숙한 소녀이미지의 모델이다. 단색과 최소한의 비장식성을 표현하는 미니멀리즘 패션은 60년대 전반의 화려하고 굴곡있는 몸매를 가진 물질만능의 향락적 모델이미지에 반(反)하여 최소형태의 단순성과 순수성의 구현을 위한 과장되게 마른 체형에 빈약한 가슴을 가진 미성숙한 모델이미지를 요구하게 된다. 그녀는 메리 쿤트가 발표한 극명한 최소장식성의 모더니티를 표출하는 미니스커트가 가장 잘 어울리는 대표적인 모델로 인식된다. 큰 눈에 뚜렷한 이목구비에 여윈 얼굴, 주근깨가 그대로 드러나는 투명한 피부에 눈망울을 강조한 메이크 업, 납작한 가슴과 가는 팔과 다리, 가늘고 깡마른 빈약한 몸매로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성숙한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아직 어린 미성숙함이 보이쉬한 소년 같은 이미지 혹은 연약한 소녀의 이미지를 느끼게 함으로 성숙한 여인의 미가 아닌 새로운 순수미로 그 당시 대중들에게 강하게 어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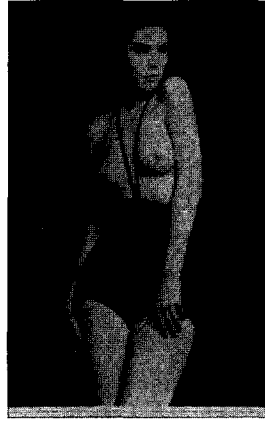
그 외에 트위기와 유사한 이미지로 트리 페넬로페(Tree Penelope)가 있는데, 저명한 사진작가 세실 비통이 꼬마 요정 같은 그녀의 얼굴을 60년대의 트위그(twig) 이미지로 그려내었다<sup>15)</sup>.



<사진 1> Jeanne Shrimpton  
Catwalking, p.92



<사진 2> Celia Hammond  
Catwalking, p.93



<사진 3> Peggy Moffitt  
The Fashion Book, p. 190



<사진 4> Twiggy  
서양복식문화사, p.391

## 2. 1970년대

70년대는 60년대의 미니 스타일에 이어 핫팬츠가 잠시 나타나다가 우아한 클래식 스타일의 엘레강스 룩으로 바뀌어 미니멀룩, 레이어드룩, 레트로룩, 에스닉룩, 빅룩, 유니섹스룩 등이 다양하게 나타났다<sup>16)</sup>.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스타일과 액티브 레저웨어 등의 유행도 주목할 만하다. 70년대 후반에는 여성의 어깨를 과도한 어깨패드를 통해 인공적으로 넓히거나 드롭(drop)시킨 소매에 레이어드(layed) 스타일을 가미하여 전체적으로 험렁한 이국풍의 빅 룩이 유행되어 80년 전반까지 크게 유행하게 된다.

글래머러스룩(glamorous look)은 70년 초기의 글램 락(glam rock)과 말기의 디스코(disco) 패션에서 등장하고 있다. 글램 락은 70년대 행위로서의 순수 글래머를 이룩한 70년대 락의 퍼포먼스(performance)인데, 70년 초 글램 락커 들의 무대는 헬시(healthy)하며, 글래머러스한 스타일의 의상과 행동으로 나타났다<sup>17)</sup>. 또한 70년대 말에 유행한 디스코음악과 댄스에 의한 디스코 패션의 열풍이 불어닥쳤다. 디스코패션은 반짝이거나 반사되는 소재 등이 이용되었으며, 스트레치성 신소재 개발에 의한 바디 스타킹의 등의 스킨타이트 스판덱스(skin tight spandex)는 스포츠웨어에 사용될 뿐 아니라 디스코 패션에 이용되는 글래머러스 스타일이 유행되었다. 70년대 후반에 나타난 여성 패션의 경향은 첫째, 선정적인 스타일의 여성의 매력을 표현하는 패션으로 노골적인 성적표현이 아니라 품격있는 섹시함을 보여주었다. 둘째, 복고풍이 강하게 나타났다. 셋째, 쾌활함, 활발함, 명랑함이라는 의

미를 가진 패션이었다. 이것은 스포티룩에 따르는 것이나 딱딱함이라든가 남자다운 감각이 배제되고 좀더 여성스러운 소프트함을 바탕으로 감각적 생동감이 넘치고 있다<sup>18)</sup>.

70년대부터 규범화된 여성미로 부터 여성미의 개념과 기준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모델의 이미지는 격식없는 여성으로, 히피 소녀로, 아웃도어의 걸로, 디스코의 인형같은 존재 등으로 다양한 이미지로 부상되며 모델들은 그 아이덴티티(identity)를 찾아갔으며, 60년대 영국인 모델에 이어 미국인 모델이 패션계를 지배하게 되었다<sup>19)</sup>. 70년대 모델은 이러한 패션 경향에 따라 60년대에 비해 키가 크고 풍만한 가슴에 작은 힙, 넓은 어깨의 신체가 요구되었다.

### 1) 자연스러움과 현명한 스타일의 이미지, 로렌 휴튼(Larun Hutton)

그녀는 건강하고 현명한 이미지(사진 5)로, 여성들의 자신감 증대와 독립된 태도가 남녀 동등성을 의복을 통해 표현하는 빅 룩 스타일에 적합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강인함에 내재된 역설적 관능미를 가진 이미지, 짧은 머리와 탄탄한 근육의 이미지, 각지며 남성적인 윤곽을 한 잘 생긴 얼굴, 넓은 어깨, 케리어 우먼으로서의 활기찬 이미지 등으로 한 때 로렌 휴튼은 여성에게 어필되는 자연스런 여성미와 일종의 섹시함, 여러 가지를 섞은 종합적인 미로 인정받았다.

아르마니 의상이 가장 잘 어울리는 모델로도 평가받은 휴튼은 건강, 활력, 자연적인 미를 발산시켜 성공한 최초의 미국인 모델로, 앞니가 떨어진 불완전한 웃음과 지적인 얼굴분위기로 가장 고액의 모델료를 받았다.

## 2) 엑조틱한 스타일의 블랙(black)미의 이미지, 이만(Imman)

70년대는 엑조틱 패션이 크게 유행하였다. 바야흐로 에스닉 뷰티가 패션에 유입되며 흑인 혹은 혼혈 모델이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나오미 심즈(Naomi Sims)는 슈퍼스타상을 받은 최초의 흑인 스타모델이 되었다. 검은 진주라 불리웠던 소말리아 출신의 이만(사진 6)은 에스닉 뷰티의 대명사로 그 시기에 가장 유명한 흑인 모델인데, 백인 모델을 포함해 모델 중 그 당시 최상의 모델료를 받는 최고의 모델이었다. 그 밖에 제릴 홀과 더불어 프레타 포르Ep 컬렉션에서 재미있고 섹시한 워킹으로 캣워크(catwalk)의 여왕이 된 팻 클리브랜드(Pat Cleveland), 하와이언과 어메리칸의 혼혈로 다케다 겐조가 가장 좋아하는 마리 헬빈(Marie Helvin), 74년 어메리칸 보그지 최초의 흑인 모델인 버버리 존슨(Beverly Jhonson) 등이 있다<sup>20)</sup>.

그러나 이들은 진정한 토속적 흑인의 외모가 아니라 예쁘고 아름다운 서양 미인의 이목구비를 가졌으며, 다만 피부색이 검은 외모로, 본연의 흑인의 미가 그대로 인정된 것이 아니며, 여전히 화이트 중심에 블랙에 의한 트렌드적 취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 3) 우아한 관능적 스타일의 이미지, 베루시카(Veruschka)

70년대 후반에 나타난 여성 패션의 경향은 선정적인 스타일의 여성 매력을 표현하는 패션으로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아니라 품격있는 섹시함을 보여주었다. 베루시카(사진 7)는 우아하며 아름답고 품격있는 섹시함을 지닌 서구 미인 이미지의 모델로, 큰 눈과 오뎅한 콧날, 도톰한 큰 입술, 작고 가름한 얼굴형을 한 현대적 미인의 전형이다. 8등신의 호리호리하면서

도 균형잡힌 몸매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60년대 트윅기, 70년대 베루시카, 80년대 클라우디아 슈퍼를 잇는 최고 모델<sup>21)</sup>로서 70년대를 대표하는 모델로 평가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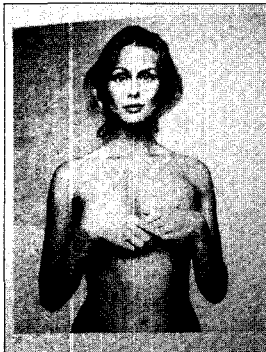
## 4) 섹슈얼 & 글래머 스타일의 이미지, 제리 홀(Jerry Hall)

디스코 패션, 스킨타이트 스판텍스, 스포츠 웨어, 글래머룩 등은 섹시하고 글래머러스한 이미지의 모델과 상응하게 된다. 재미있고 섹시한 워킹으로 유명한 제리 홀(사진 8)은 우아한 미와는 거리가 먼 육체적 관능성의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그밖에 약간의 이미지 차이는 있지만 글래머 섹슈얼 이미지의 모델로 페티 헨슨(Patti Hanson), 마리사 베렌슨(Marisa Berenson) 등이 있다.

## 3. 1980년대

80년대는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영향으로 패션 경향이 서서히 다양화되고 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80년대 전반은 다케다 겐조나 이세이 미야게 등의 일본 디자이너에 의해 화려한 칼라의 레이어드 스타일과 올 블랙 칼라의 제페니즈룩이 발표되어 동양의 평면적 디자인 구성에 의한 새로움을 주었다. 80년대 패션은 성(sex), 파워(power), 신분(status)이 그 전형(全形)이라 할 수 있다.

70년대 후반에 이어 의상이 비즈니스 우먼의 성공을 위한 개념으로 인식됨으로 인해 빅룩의 여파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이루다가 중반부터 서서히 어깨가 얇고 좁아지며, 점점 부드럽고 곡선적인 스타일로 바뀌며 여성스러워진다. 이어 자연에 관한 높은 관심의



<사진 5> Larun Hutton  
Fashion Today, p.128



<사진 6> Imman  
Catwalking, p.142



<사진 7> Veruschka  
Icons of Fashion, p.93



<사진 8> Jerry Hall  
Catwalking, p.133

영향으로 자연적인 색상위주의 칼라전개와 천연소재가 사용된 에콜로지룩, 몸에 피트하게 밀착되어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굴곡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보디컨셔스룩(body conscious look), 캐주얼이 보편화되고 유니섹스 모드가 유행함에 따라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을 자연스럽게 융합시킨 앤드로지너스(androginous)룩이 나타났다<sup>22)</sup>. 특히 80년대 중반 여성의 인체에 대한 관심이 거의 강박적이다 시피할 정도로 지나치게 드러나, 디자이너들은 라이크라 라텍스(lycra latex)의 마이크로 드레스(maicro dress)로 인체를 감싸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할 정도로 완벽한 여성의 인체 형태를 만들어나갔다.

또한 이 때는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의 결합을 통해 문화의 참가치가 엘리트층에서 일반 대중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여 흑인문화의 영향이 두드러졌으며 건강 열풍과 함께 매끄러운 몸매의 건강미가 새로운 이상미로 등장하였다. 80년대 중반 이래 신체는 노출되는 방향으로 점점 더 신체미를 강조하면서 에로틱하고 과감하게 변해갔다. 바디컨셔스라인의 핵심적 요소인 라이크라의 개발은 신체미 강조에 더욱 일조를 하게 된다.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강조되었으나 남성의 시선에 의해 억압당한 성적 대상이라기보다는 여성 스스로의 자신감과 힘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sup>23)</sup>. 실버스테인(Silberstein)은 80년대에는 여성의 몸매에 더 많은 근육과 건강함이 나타났다고 했으며, 타이틀도 ‘이상적 미의 새로운 기준’이란 타이틀에서 날씬하면서 건강한 근육질을 소유한 영화배우 제인 폰다(Jane Ponda)와 같은 여성이 현대의 새로운 미의 기준이라고 평가했다<sup>24)</sup>.

모델계에서도 80년대는 잘록한 허리, 풍만한 가슴, 늘씬한 다리를 가진 글래머러스 모델이 대거 활약을 한다. 여전히 70년대 글래머 섹슈얼 이미지의 모델들이 계속 활동을 하는 가운데 펫 클리브랜드, 제리 홀 등은 계속해서 왕성한 활동을 하며 로잔나 벨라(Roseanne Vela), 크리스티 블링클리, 70년대에 모델을 시작한 이만 등이 가장 카메라 앞에 많이 선 사진모델로 기록된다. 80년대 중반 이네스 드 라 프레상주가 샤넬의 전속모델로 발탁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으며, 80년대 말에 이른바 슈퍼 모델이 등장하여 모델계에 새로운 신화를 창조해 나간다.

#### 1) 파워풀(powerful)한 유니섹스 스타일의 이미지, 그레이스 존스(Grace Jones)

80년대 패션의 이슈였던 여성의 파워어적 이념을

극대화시켜 실제화한 모델로 보여진다. 그레이스 존스(사진 9) 흑인 모델로 아주 짧은 스포츠형 머리에 큰 가슴, 넓은 어깨, 작은 힙, 가는 허리, 큰 키의 몸매가 운동으로 다져져 탄탄한 건강미, 남성성이 혼재한 역설적 관능미를 지녔다. 인체의 굴곡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보디컨셔스룩, 혼성적 이미지의 유니섹스 모드, 앤드로지너스룩 등의 스타일과도 일치하는 이미지이다.

#### 2) 우아하고 귀족적 스타일의 이미지, 이네스 드 라 프레상주(In'és de la Fressange)

우아한 외모, 마른 몸매, 큰 키의 체형으로 지적이며, 귀족적인 상류사회의 이미지로 샤넬 하우스의 상징으로 선택된 그녀는 80년대 하반기 최고의 스타모델로 부각된다. 섹슈얼 여성이미지를 벗어나 독립적이며, 스스로 존중받을 수 있는 품격을 드러냄으로 인해 전술한 바와 같이 80년대의 패션 이슈인 ‘신분’이라는 이상적 개념을 실제화한 모델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에콜로지룩, 내추럴 룩 등의 감각에도 호응하는 이미지의 모델이기도 하다(사진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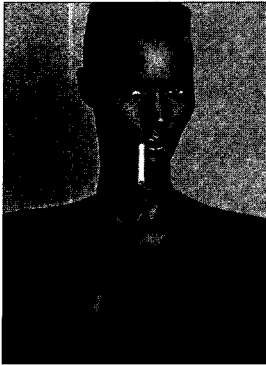
#### 3) 건강미와 섹슈얼 스타일의 이미지, 크리스티 블링클리(Christie Brinkley)

80년대 이상적 미의 새로운 기준인 건강한 신체에 관능성과 자신감을 갖춘 해방된 신체로 크리스티 블링클리(사진 11)가 그 이상을 실현한 대표적인 모델로 꼽을 수 있다. 소극적이고 남성의 시선에 지배당하는 나약한 관능미가 아니라 자신감과 적극적인 관능미로 80년대의 패션의 특징적 경향인 파워어풀한 적극적 여성미를 실현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그녀는 에어로빅으로 다져진 몸매, 풍만한 가슴과 70년대 보다 10파운드가 더나가는 풍만한 몸매로 80년대 글래머 스타모델이 되었다. 80년대 바디컨셔스룩의 열풍과 라이크라의 바디피트 스타일에서 표현되는 매끄러운 인체미, 스포티브 캐주얼의 적극적 이상 등에 부합되는 스타일이다.

#### 4) 섹시함과 현명한 스타일의 이미지, 슈퍼모델들

80년대 후반에 활동하기 시작한 10대 후반의 나옴이 캬벨, 클라우디아 쉬퍼, 신디크로포드, 린다 에반젤리스타 등(사진 12)이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슈퍼모델의 시대를 연다. 슈퍼모델의 태동이 80년 말기이므로 문헌에 따라 80년대로 보기도 하나 그 활약상이 90년대에 이루어짐으로 대개는 90년대로 보



<사진 9> Grace Jones  
Fashion of a Decade the  
1980's, p.2



<사진 10> Ine's de la  
Fressange Collezioni N.6,  
1988, p.151



<사진 11> Christie Brinkley  
Catwalking, p.115



<사진 12> Supper model  
Catwalking, p.157

는 경우가 많아 본고에서도 90년대에 다루기로 한다.

#### 4. 1990년 ~ 현재

90년대는 흔히 리사이클링의 시대로 이야기하는데 20세기를 회고하는 지속적인 복고풍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자연주의, 민속풍, 미니멀리즘, 시스루룩 등이 유행하고 스트리트 패션의 영향력이 컸다. 90년대 전반(90년-95년)의 패션은 자연주의 성향과 복고무드로 에콜로지(ecology), 에스닉(ethnic), 그런지(grunge), 네오히피(neo-hippie), 히스토리시즘(historicism), 스트리트(street), 복고풍(retro)패션 등이 유행하였다<sup>25)</sup>. 종래의 장식적인 디자인 개념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다채로운 스타일이 역사적 시간과 공간을 오가며, 교류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특성을 강하게 나타냈으며, 이러한 경향은 매우 깊고 광범위하게 90년대 트렌드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패션의 주제는 자연주의, 세계주의, 미래주의, 복고주의 등으로 이와같은 패션의 테마들은 각각 독립적이기보다는 서로 상호 보완하고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90년대 패션으로 향상화되었다<sup>26)</sup>.

90년대 패션의 핵심 요인인 포스트모던적 특징을 모르가도(Macia A. Morgado)는 모든 것이 디자인되어 새로운 것이 없으며, 스타일이 재순환되는 복고풍(진보의 죽음), 변덕스럽고 순간적인 스타일의 변화와 패션의 가속화, 불안정한 심미코드(권위의 거부), 스타일과 소재의 무질서한 조합(이질적 결합)과 부조화 요소, 절충주의, 엘리트·대중·스트리트 간의 차이 붕괴(예술의 죽음), 패션이 거리에서 창출되며 누가

누구에게 미치는지 불분명하며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함(이질성), 민족과 하위문화 스타일의 차별화와 다양성의 주목과 보이지 않던것의 가시화(탈 중심화, 장신구의 강조(브리콜라주bricolage, 페티쉬fetish), 이미지와 외모 자체에 대한 관심과 뭔가 의미를 나타내는 이로서의 역할, 왜곡되고 혼란한 영역과 의도된 손상, 자연스러움에의 무시, 전통에의 도전 등으로 보았다<sup>27)</sup>.

90년대는 슈퍼모델의 시대이다. 지아니 베르사체에 의해 이른바 슈퍼모델이라는 칭호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클라우디아 슈퍼, 린다 에반젤리스트라, 크리스티 달링턴, 나오미 캠벨, 신디 크로포드 등의 슈퍼모델이 80년대 말 활동을 시작하여 90년대를 이른바 슈퍼 모델의 시대로 개막하게 된다. 이들은 90년대 전반의 패션계를 주도하며 톱모델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있다. 중반에 들어서면서 포스트모던적인 다양성의 요구에 대응한 개성적인 이미지들이 대거 등장하게 된다. 이상적인 신체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표준화된 신체에 대한 강조는 모호해졌고, 대중매체를 통해 보여지는 신체적인 매력도 획일적인 미보다는 다양하고 개별화되어 나타났다. 이와같이 개별화된 다양성에 대한 대응과 충족은 90년대 이후 유사 이래 최대의 모델 이미지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특히 90년 후반경 부터는 얼굴 모습이 아름답고 예쁜 미인형의 얼굴보다는 각진 얼굴, 긴얼굴, 둥근 얼굴, 넘적한 얼굴 형이 많고, 이목구비의 아름다운 균형미가 무시되어 특이하고 개성적인 다양한 모습의 마스크가 주목을 받고있다. 키는 더욱 커지고 몸매는 80년대 보다 더욱 슬림한 몸매가 지배적이다.



#### 1) 트위기 스타일의 미성숙하고 빈약한 이미지, 케이트 모스 (Kate Moss)

패션의 복고풍은 90년대 패션의 지속적인 테마이었다. 특히 60년대 패션의 복고적 스타일은 두드러진 현상이었다. 켈빈 클라인의 상징으로 발탁된 케이트 모스(사진 13)는 미성숙한 보이쉬 스타일에 굴곡없는 직선적 몸매와 작은 키(168 cm)를 지녀 그 당시 획기적인 스타일로 일약 스타가 된다. ‘가족만 남은’ 모델, ‘집 없는 초라한 아이’로 소개된 바 있는 케이트 모스가 트위기로 종종 비교되곤 한다. 이같이 최고로 마른 체형의 모델로는 최근의 조디 키드(Jodie Kidd)를 들 수 있는데 그녀는 쉬크(chic)한 히로인으로 취급된다<sup>28)</sup>. 그 외에도 모간 더글라스(Meaghan Douglas)를 들 수 있다.

#### 2) 적극적 자신감과 글래머 섹슈얼 스타일의 이미지, 클라우디아 쉬퍼(Claudia Shiffer)

잘록한 허리, 날씬한 다리의 관능적 이미지, 헬시 앤 글래머러스(heathy and glamours)로 80년대 후반부터 활동한 대표적 패션모델로 풍만하면서 건강한 몸매를 지닌 클라우디아 쉬퍼(사진 14), 신디 크로퍼드(Cindy Crawford), 나옴 캠프bell(Naomi Campbell)<sup>29)</sup> 등으로 있다. 특히 클라우디아 쉬퍼는 뉴-브리짓드 바르도라는 별명과 함께 90년 글래머 섹슈얼 스타일의 상징적 모델이 된다. 슈퍼모델들은 글래머 섹슈얼리티에 90년대적인 현명함, 자신감의 이미지를 부가하여, 모든 디자이너의 무대를 지배한 그들은 다양한 변신으로 전천후 모델로서 활약한다.

그 밖에 글래머 섹슈얼 이미지의 모델로 카렌멀더(Karen Mulder), 스테파니 세이부어(Stephanie Symore), 브리짓 홀(Bridget Hall), 레티시아 카사(Laetitia Casa), 에바 헤르치코바(Eva Herzigova)등의 활동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 3) 기품있는 우아한 스타일의 이미지, 크리스티 달링턴(Christy Turlington)

시간을 초월한 이집트의 여왕 네페르티(Nefertiti)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그녀는<sup>30)</sup> 비례와 균형미를 지닌 기품있는 모델 이미지로 슈퍼 모델의 대열에 합류한다(사진 15). 유사한 이미지로 에스텔 할리데이(Estelle Hallyday), 타타냐 파티즈(Tatjana Patize) 등이 활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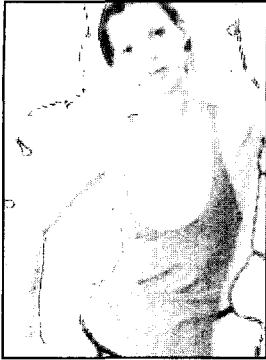
#### 4) 젠더리스(genderless) 스타일의 이미지, 스텔라 텐넌트(Stella Tennant)

90년대 패션의 포스트모던적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패션의 중성적 혹은 양성적 이미지이다. 이러한 경향은 패션모델에도 파급되어 남성성과 여성성의 양면이 혼재하는 양성적 이미지나 남성도 아닌 여성도 아닌 모호한 중성적 이미지의 모델들이 대거 진출하여, 모델계의 주류적 이미지를 지배해 온 관능적 여성미를 전복시키고 톱모델의 대열에 오르게 된다. 96년 샤넬의 뉴 페이스(이네스 드 라 프레상 주-클라우디아 쉬퍼에 이어)가 된 귀족 출신의 스텔라 텐넌트가 그 대표적 모델인데, 중성적 얼굴모습에 마르고 큰 키를 지녀, 포스트모던 패션의 절충주의, 불확정성의 애매모한한 미학을 실현하는 선두적 모델이 되었다. 양성성의 성적인 카리스마를 동시에 추구하는 중성적인 신체미는 여성다움이나 남성다움을 초월한 이성요소를 공유한 새로운 형상으로 중성적 또는 성개념이 사라진 성의 혁명이다. 이 이미지에 부합되는 스타일은 스텔라 텐넌트(사진 16)를 비롯해 에스테르 드 중(Esther de Jong), 매기 라이저(Maggie Rizer), 카렌 엘슨(Karen Elson), 자케타 휠러(Jacquetta Wheeler) 등이 대표적으로 톱모델이 된다. 샤넬의 칼라가펠트는 카렌 엘슨을 두고 ‘중세시대 사람과 다른 혹성에서 온 돌연변이의 믹스’라며 초현대적인 남녀 혼성 캐릭터를 가졌다고 묘사했다<sup>31)</sup>.

사각턱의 각진형, 두껍고 큰 입, 넓은 이마, 큰 코, 얼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이목구비와 강한 선등 남성적 얼굴형에 넓은 어깨, 남성적 강인한 매너를 지니며, 한편으로 역설적이고 비정상적인 섹슈얼리티로 묘한 관능성의 이미지를 들어낸 크리스텐 맥나미(Kristen McMennamy)는 양성미의 대표로 꼽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스포츠형 머리의 일본계 모델인 제니 시미즈(Jenny Shimizu), 여성적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대머리 모델로 강인한 양성미를 풍긴 이브 살베일(Eve Salvail)를 꼽을 수 있다. 그리고 크리스텐 오웬(Kristen Owen), 기느베르 반 지누(Guinevere Van Seenus), 안젤라 린드발(Angela Lindvall) 등이 남성적인 얼굴에 역설적 관능미를 지닌 양성적 모델로 지금도 활약하는 스타 모델 들이다.

#### 5) 뉴 글래머 스타일의 이미지, 지젤 번천(Gisele Bundch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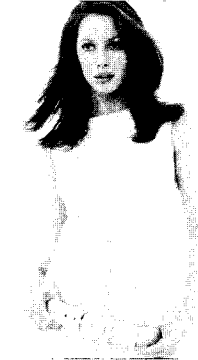
90년대 하반기로 오면서 슈퍼모델의 시대를 연 클



<사진 13> Kate Moss  
<http://imagesearch.naver.com>



<사진 14> Claudia Shiffer  
<http://imagesearch.naver.com>



<사진 15> Christy Turlington  
<http://imagesearch.naver.com>



<사진 16> Stella Tennant  
<http://imagesearch.naver.com>

라우디아 쉬퍼나 신디 클로포드 같은 글래머 스타일의 맥을 이어 새로운 글래머 스타일이 나타나게 된다.

하반기 포스트모던적 경향은 이전의 글래머보다는 새로운 신체미의 이상을 실현하는 뉴 글래머 이미지를 요구하게 된다. 뉴 글래머 스타일은 이전의 슈퍼 모델에 비해 키가 더 크고, 더 슬림하며, 얼굴의 모습이 더욱 현대적미를 갖추고 있다. 그들 중의 대표주자가 지젤 번천(사진 17)인데 그녀는 현대적 미모의 마스크와 180 cm에 달하는 큰 키에 호리호리한 슬림한 몸매이면서도 여성적 라인의 굴곡있는 몸매로 90년대 미적 이상의 리얼리티로 평가받으며 제1회 '98 VHI/보그 패션어워드<sup>32)</sup>의 올해의 모델로 선정되었다.

그 외에도 얼음처럼 차가운 눈과 백금색 머리에 기형일 정도로 길며 곧은 45인치 다리의 소유자인 나디아 아우어만(Nadja Auermann), 2000년 VHI/보그 패션 어워드의 올해의 모델로 선정된 카렌 카스(Carmen Kass), '98 VHI/보그 패션어워드의 올해의 모델 케틀라인 머피, 그리고 케틀리나 쿠르코바(karolina Kurkova) 등이 있다.

6) 유일한 개성적 스타일의 새로운 이미지, 앰버 발레타(Amber Valletta)

차별화와 다양성의 패션 트렌드에 부응하는 독특하고 색다른 이미지가 모델계에 부상된다. 즉 기존의 모델과는 다른 이미지의 독특하고 개성적인 마스크로 새롭고도 유니크한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스타일인데, 1/3이 넘는 넓은 이마와 현대적 세련미를 갖추어 도시적 분위기와 엘레강스가 믹스된 매력을 지닌 새로운 이미지의 앰버 발레타<sup>33)</sup>(사진 18), 확연히 드러나는 사각턱에 날카로운 눈매와 남작한 가슴을 지닌 샬롬 할루우(Shalom Harlow), 글래머러스한 서양

적 미모에 페루인 혼혈로 인해 내제된 신비감이 배어나는 헬레나 크리스텐센(Helena Christensen)등 기존의 모델이 갖지 못한 새롭고도 유니크한 아름다움이 각광받게 된다.

7) 이국적 스타일의 이미지, 데본 아오끼(Devon Aoki)

90년대 포스트모던적 탈중심적 사고는 서양 중심에서 동양과 소수 민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민족주의적 패션, 에스닉 패션 트렌드로 나타나게 된다.

흑인모델의 활동은 미약하나마 70년대 이만을 필두로 슈퍼모델인 나오미 캠벨등 최고의 스타들이 탄생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백인 중심적미를 갖추고 다만 흑색 피부를 가진 모델로 흑인 본래의 아름다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90년대에는 순수 동양적 미와 토속적 흑인의 미를 가진 민족적 이국미가 등장하여 두드러진 활동을 한다. 데본 아오끼(사진 19)는 일본과 네덜란드 혼혈인으로 동양인의 넓적하고 둥근 마스크에 172 cm의 작은키로 최근 스타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베트남인 링 탕은 세계무대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동양인이며, 흑인인 알렉 웨크(Alek Wek)은 충격적이다시피한 아프리카의 토속적 얼굴로 흑인모델을 대표하고 있다.

8) 그 밖에 나타나는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

이상에 열거한 이미지 이외에도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화되고 다양화된 포스트모던 패션 트렌드의 요구에 부응하여 수많은 스타일의 모델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하였다.

먼저 패티시적 이미지로 브랜드 케이스의 슈퍼글래머 모델이었던 안나 니콜 스미스(Anna Nicole Smith),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뮤즈(muse)인 창부적 이미지의



<사진 17> Gisels Bundchen  
http://imagesearch.naver.com



<사진 18> Amber Vaiietta  
http://imagesearch.naver.com



<사진 19> Devon Aoki  
http://imagesearch.naver.com

<표 1> 패션 스타일, 패션모델 이미지와 대표적인 모델

	패션스타일과 패션모델이미지	대표적인 모델
60년대	이노센트 돌리스타일의 이미지	Jean Shrimpton
	섹슈얼 스타일의 이미지	Celia Hammond. Tania mallet Jill Kennington. Sue Marray
	개성적 마스크의 아트적 스타일의 이미지	Peggy Moffit
	미성숙한 보이쉬스타일의 이미지	Twiggy. Tree Penelope
70년대	자연스러움과 현명한 스타일의 이미지	Larun Hutton
	엑조틱한 스타일의 블랙이미지	Imann . Pat Cleveland Marie Helvin. Beverly Jhonson
	우아한 관능적 스타일의 이미지	Veruschka Patti Hanson. Marisa Berenson
	섹슈얼&글래머 스타일의 이미지	Jerry Hall
80년대	파우어풀한 유니섹스 스타일의 이미지	Grace Jones
	우아하고 귀족적인 스타일의 이미지	In'es de la Fressange
	건강미와 섹슈얼 스타일의 이미지	Christie Brinkley
	섹시함과 현명한 스타일의 이미지	Super models
90년대 이후	적극적 자신감과 글래머 섹슈얼스타일의 이미지	Claudia Shiffer. Naomi Campbell Cindy Crawford. Karen Mulder
	기품있는 우아한 스타일의 이미지	Christy Turlington Estelle Hallyday. Tatjana Patize
	젠더리스 스타일의 이미지	Stella Tennant. Jacquetta Wheeler Maggie Rizer . Karen Elson
	트위기 스타일의 미성숙하고 빈약한 이미지	Kate Moss. Jodie Kidd
	뉴글래머 스타일의 이미지	Gisels Bundchen. Nadja Auermann Carmen Kass . Karolina Kurkova
	유일한 개성적 스타일의 새로운 이미지	Amber Vaiietta. Shalom Harlow Helma Christensen
	이국적 스타일의 이미지	Devon Aoki. Lin Tan. Alek Wek
	그 밖의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	Sara Stockbridge. Marie Sezneck

사라 스톡브리지(Sara Stockbridge), 칼리 박스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크리스찬 라크루와가 좋아하는

중년의 모델 마리 세즈넥(Marie Sezneck), 장 폴 고티에의 노인 모델, 게이 모델, 비만형 모델, 희귀할 정도

로 특이하고 못생긴 모델 등 이른바 포스트모던적인 새롭게 하기와 낯설게 하기의 패션 미학에 발맞춰 유사 이래 최고로 다양하고도 특이한 이미지들이 속출하게 된다.

이상의 연구내용을 패션트렌드에 의한 패션스타일과 패션모델이미지, 그리고 대표적인 패션모델을 그룹으로 하여 <표 1>로 정리하였다.

#### IV. 요약 및 결론

동시대의 욕구를 패션이라는 통로를 통해 표출하고 있는 패션 트렌드와 패션모델은 동일한 하나의 정신과 욕구가 내재하며, 다만 그 표현형식에 있어 차이가 있는 유사한 기호들이다. 그러므로 패션 트렌드와 패션 모델이미지는 반드시 상호간에 맞물리는 연결고리가 필수 불가결하게 존재하게 된다.

연구결과 시기에 따른 패션 트렌드와 패션 모델이미지는 상호간에 상당히 밀접하게 일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패션트렌드에 의한 패션스타일과 패션모델이미지, 그리고 대표적인 패션모델의 그룹으로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60년대는 1) 이노센트 돌리 스타일의 이미지, 진 쉬림톤, 2) 섹슈얼 스타일의 이미지, 세리아 하몬드(Celia Hammond), 3) 개성적 마스크의 아트적 스타일의 이미지, 페기모펏(Peggy Moffitt), 4) 미성숙한 보이쉬(boyish) 스타일의 이미지, 트위기(Twiggy)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70년대는 1) 자연스러움과 현명한 스타일의 이미지, 로렌 휴튼(Larun Hutton), 2) 엑조틱한 스타일의 블랙(black)미의 이미지, 이만(Imman), 3)우아한 관능적 스타일의 이미지, 베루시카(Veruschka), 4) 섹슈얼 & 글래머 스타일의 이미지, 제리 홀(Jerry Hall) 등으로 요약된다.

셋째, 80년대는 1) 파워풀(powerful)한 유니섹스 스타일의 이미지, 그레이스 존스(Grace Jones), 2) 우아하고 귀족적인 스타일의 이미지, 이네스 드 라 프레상쥬(In`es de la Fressange), 3) 건강미와 섹슈얼 스타일의 이미지, 크리스티 블링클리(Christie Brinkley), 4) 섹시함과 현명한 스타일의 이미지, 슈퍼모델들(super model) 등으로 나타난다.

넷째, 9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모델의 이미지와 그 대표적인 모델은 1) 적극적 자신감과 글래머 섹슈얼 스타일의 이미지, 클라우디아 쉬퍼(Claudia Shiffer), 2) 기품있는 우아한 스타일의 이미지, 크리스티 달링

턴(Christy Turlington), 3) 젠더리스 스타일의 이미지, 스텔라 텐던트(Stella Tennant), 4) 트위기 스타일의 미성숙하고 빈약한 이미지, 케이드 모스(Kate Moss), 5) 뉴 글래머 스타일의 이미지, 지젤 번천(Gisel Bundchen), 6) 유일한 개성적 스타일의 새로운 이미지, 엠버 발레타(Amber Vaietta), 7) 이국적 스타일의 이미지, 데본 아오끼(Devon Aoki), 8) 그 밖에 나타나는 다양한 이미지 등으로 조사되었다.

본고는 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패션 트렌드와 패션모델 이미지의 상호연관성의 흐름에 따른 전체 맥락을 파악하고자 시도했다. 따라서 지면상 세부적인 트렌드나 패션 스타일에 따른 패션모델의 이미지를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90년대 이후의 패션트렌드에 따른 패션모델의 다양한 이미지는 유사 이래 최대의 양상을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후속된다면 현대의 패션의 미와 현대 인체의 미, 나아가서는 현대미를 가늠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1) 박신희(1999). 1990년대 해외컬렉션과 국내컬렉션의 패션트렌드 비교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3.
- 2) 김소영, 양숙희(2002). 패션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이상적 신체미(제2보) -신체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8(52), p. 42.
- 3) Harriet Quick(1996). Catwalking. London : Octopus Publishing Group Ltd.  
Colin Mcdowell(2000). Fashion Today. London: Phaidion Press Ltd.  
The Fashion Book(1998). Phaidion Press Ltd.ed.
- 4) 정현숙(1995). 사회 분위기가 패션 모델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Twiggy와 Kate Moss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1), p. 81.
- 5) 정삼호 외(2002). 패션트렌드에 나타난 퓨전스타일 연구. 중앙대학교 생활과학논집, 2, p. 97
- 6) 김소영, 양숙희(2001). 현대 패션 변화에 따른 마네킹의 표현양상. 복식문화연구, 9(1), pp. 73-74.
- 7) 영한 대사전(1991). 서울 : 시사 영어사, p. 1462.
- 8) Charlotte Mankey Calasibetta(1998).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N.Y : Fairchild, p. 374.
- 9) 허준(1995). 파리모드 2000년-현대 모드의 오프 퍼피크의 후계자들. 서울 : 유림 문화사, p. 89.
- 10) 김청(1986). 모델과 프랑스모드의 비밀. 월간 멋, 86년 7월호, p. 211.
- 11) 상계서. pp. 211-212.

- 12) Harriet Quick., op. cit., p. 81.
- 13) 금기숙 외(2002). 현대패션100년. 서울 : 교문사, pp. 216-217.
- 14) Harriet Quick., op. cit., p.92.
- 15) The Fashion Book, op. cit., p. 460.
- 16) 금기숙 외. 전개서. p. 235.
- 17) Jacqueline Heraid(1992). Fashion of a Decade -the 1970s. London: B.T. Batsford Ltd., pp. 40-41.
- 18) 정홍숙(1999). 서양복식사. 서울 : 교문사, p. 398.
- 19) Harriet Quick, op. cit., p. 115.
- 20) Ibid. pp. 127-128.
- 21) Gerda Buxbaum(1999). ed., Icon of Fashion. N.Y. : Prestel, p. 92.
- 22) 금기숙 외. 전개서. pp. 271-272.
- 23) 김은희(2001). 20세기에 나타난 여성의 이상적 신체미와 패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권 2호, p.501
- 24) 김소영, 양숙희(2002). 전개서. p. 147.
- 25) 정삼호(1996). 1990년대 현대패션의 흐름을 통해 고찰한 패션스타일에 관한 연구 - 1990-1995년의 여자복식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가정문화논총, 10, p. 75.
- 26) 남재경, 금기숙(2001). 1990년대 패션트렌드 분석연구. 한국복식학회, 25(9), p. 164.
- 27) Morgado, Macia A.(1996). Coming to Terms with Post-modern: Theories and Concepts Contemporary Culture and Their Implication for Apparel Scholar, C. T. R. journal, 14(1), pp. 41-53.  
최선행(2001). 패션 : 포스트모던적 접근. 카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문집, 21(1), p. 66에서 재인용.
- 28) Gerda Buxbaum, ed., op. cit., p. 92
- 29) 이유리(2001). 20세기 패션모델의 변천과 사회적 배경에 관한 사적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 61-62.
- 30) Harriet Quick., op. cit., p. 150.
- 31) [www.vogue.co.kr/whos/who2-025.html](http://www.vogue.co.kr/whos/who2-025.html).
- 32) VH1은 미국의 유력한 음악방송 채널명이며, VH1과 보그패션잡지사가 공동으로 올해의 모델을 선정하여 상을 수여하는 것을 말함.
- 33) Harriet Quick., op. cit., p. 171.